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철¹, 박동진^{2*}

¹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²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mployment for Peer Support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Hee-Chul Choi¹, Dong-Jin Park^{2*}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²Research Fellow, Welfare Cooperation Team,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요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자조모임 운영, 사업 및 시설홍보, 직원 보조지원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과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된다면 보다 동기부여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업참여를 통해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키워드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사업, 고용 활성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more progressive promotion of employment plan for peer support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Therefore,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in charge of peer support activity, leadership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expectations for capacity strengthening of ability through the project, and recognized the role of peer support workers as emotional support for peer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operation of self-help meeting, promotion of project and facility, assistant support for colleagues etc. In addition, they saw that they could be more motivated if they were given financial rewards and meaningful role performance, feeling hard but rewarded and taking efforts for improvement of one's specialty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bout and provided practical suggestion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eer support workers for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Key Words :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Peer support activity, Leadership development, Job creation project, Promotion of employment

1. 서론

동료지원활동 모델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비경제 활동 장애인들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1]. 2021년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0%로, 전체장애인 평균 31.3%에 비해 적고, 정신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5.3%로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보여주며, 전체장애인 평균 31.3%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19,778명 중 1,001명(5.1%)

This study is revision and supplement of the "A study on promotion of Employment for the people with mental illness(2021)" in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Dong-Jin, Park(wookana@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30, 2022

Accepted January 20, 2023

Revised November 9, 2022

Published January 28, 2023

으로 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 7,099명(35.9%), 지적장애인 4,890명(24.7%), 시각장애인 2,199명(11.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3]. 이러한 결과는 타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평균 근무기간은 전체장애인의 평균 157개월에도 못미치는 121개월이며, 임금근로자 기준 월 평균 수입은 95만9천 원으로 전체장애인 평균 187만5천원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서 매우 열악한 고용현황을 보여주고 있다[2]. 한편 취업한 장애인 상시근로자 총 205,039명 중에서 정신장애인은 1.4%인 2,854명에 불과하며, 51%가 수리 및 개인서비스 환경복원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37%가 제조업, 11%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며 취업가능한 직종 자체가 제한되어 취업까지의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51,517명의 정신장애인 가운데 27.4%는 한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 취약성과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재발위험이 높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구직에 대한 기회와 취업이 가능한 직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용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 취약집단인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보완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6]은 합의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 영역의 정신장애인에게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것은 동료지원 모델로 공론화되었다[7]. 동료지원은 기대되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에게 도구적 지지와 사회정서적 지지를 상호 간에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곧 동료지원활동은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정신장애인 동료를 돕는 주체로 참여하여 동료의 삶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9]

동료지원활동의 시작은 193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아브라함 로(Abraham Low)에 의해 퇴원 후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던 회복 기업(Recovery International)은 이후 동료지원 및 자조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단체로 발전한 이래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자 운동들이 이어지

게 되었다[10]. 서구의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1970년대 소비자 운동으로 당사자 주의가 활발해지고, 1980년대 이후 회복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동료와의 관계 및 지지가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11]. 이에 자조집단, 동료제공서비스, 동료운영서비스, 동료직원 등과 같이 다양한 동료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

동료지원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즉 동료지원활동은 이러한 도움을 받는 정신장애인의 증상감소, 역량강화, 기능향상, 회복 등에 효과가 있으며[13-15]. 도움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의 자기신뢰, 자기존중감, 사회적 관계, 직업적 역량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그 외 동료지원활동은 병원입원을 감소시키고, 자존감, 삶의 질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보고된다[18,19].

동료지원활동을 하는 동료지원가는 퇴원 후 정신장애인의 사후관리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퇴원 전 미리 찾아가 같이 퇴원 후 여러 계획을 세우고 일정기간 방문하여 사회적응과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20]. 특별히 영국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사후관리 조항을 두어 이 시기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21]. 그 밖에도 동료지원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전통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서 사례관리팀 및 응급개입팀에 참여할 수 있고, 동료를 상담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기도 한다[22]. 또한 당사자 주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응급쉼터, 상담, 독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동행'을 통해 동료지원가의 가정방문, 상담,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료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11]. 2011년에는 서울, 경기, 충청권의 7개 정신재활시설에서 시작하여 2012년에는 14개 정신재활시설에서 당사자 운영프로그램과 동료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활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서울시정신건강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동료지원가 직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23].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프로그램의 효과[11]나 당사자 경험들[22,24-25]과 동료지원활동의 표준화와 직무개발[7, 10]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직무

개발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으로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해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동료지원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주관한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고지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안내하고, 이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참여동의를 획득한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ame	Gender	Region	Facilities Type
Participant1	Female	Daegu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2	Female	Daegu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3	Female	Gyeongbuk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4	Female	Chungnam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5	Female	Busan	Comprehensive
Participant6	Fe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7	Female	Gyeonggi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8	Fe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Participant9	Female	Gyeonggi	Comprehensive
Participant10	Male	Seoul	Day Rehabilitation

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2021년 8월에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화상회의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영상 및 음성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를 문자형태로 전사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연구자료에 대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 내의 주제를 식별하고 의미를 분석하여 구조화하는 방법이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 [2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직무개발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므로, 핵심적인 주제를 도출해내는데 주제분석이 적합한 분석방법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사한 연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의미단위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경험들을 찾아내어 유사한 개념으로 묶어감으로써 주제를 찾아내어 명명하였다. 또한 명명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묶어가면서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범주화하였고, 각 주제의 의미와 맥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주명으로 통합해나갔다.

2.3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삼각검증법(trianulation)을 사용하였다. 문헌검토를 하여 보다 초점화되고 적절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초점집단인터뷰에 사용된 질문들도 문헌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문헌내용들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진 토의를 여차레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참여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아 혹시라도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주제, 연구목적을 비롯하여 연구개요를 안내하는 자료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구두로도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참여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진술자료가 녹음되고 문자형태로 전사하여 기록된다는 점, 연구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결과 발표시 익명처리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중도에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인 연구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연구참여동의서를 통해 서면으로도 확인하여 기록을 남겼다.

3. 연구결과

3.1 사업참여동기

3.1.1 당사자활동을 통한 당사자의 역량강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주도하는 당사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제 자연적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또 사회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1)

실질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조금 막상 걱정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으시고. 이거를 시설 내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면 그럼 자아존중감도 올라가고 이제 좀 취업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한 것도 있었고. (연구참여자4)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료지원 같은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분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동료지원과 역할 및 시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참여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5)

당사자 중심의 욕구 기반 서비스 당사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당사자가 양성사업에 참여하게 됐고(연구참여자10)

3.1.2 당사자의 동료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

기존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료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에 대응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제 계속 그런 사업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마침 좋은 사업이 있었고 회원분들께서 너무 하고 싶다. 언제 하나 이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회원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저희도 참여를 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참여자8)

3.1.3 직원 중심의 사업에서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의 확대

기존에 직원 중심의 사업 형태에서 직원들이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보다 확대하기 위해 동료지원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제가 그 때 그 사업을 처음 진행하다보니까 직원 중심의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도 이제 중간평가를 할 때 회원분들이 사업은 너무 좋은데 직원 중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회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동료지원분야가 굉장히 정신재활기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여서 저희가 그럼 동료지원사업을 확대해보자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조금 제공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2021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9)

3.1.4 당사자에게 활동가로서의 활동기회 부여

당사자에게 동료지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취업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았다. 당사자에게 이러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된 협회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지원한게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죠. 되게 큰 매력은 기준에 있어왔던, 양성되어왔던 동료지원활동가분들이 이제 동료, 그 기관 내에서

만. 사실은 동료지원활동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욕구가 사실 취업을 하고 당사자 활동가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취업의 기회들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고민은 이분들에게 정당한 활동비를 줌으로써 하는 것, 이게 사실 이번 일자리 사업이란 잘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회원분들이 저희 기관에 취업시켜서 활동하시는 만큼의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회원분들도 활동가가 그냥 기관에서의 활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취업의 의미로서 기관에 이제 2대 보증을 가입하고 그렇게 취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7)

3.2 사업참여 당사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

3.2.1 장기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임

사업수행기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장기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었다. 그러다보니 기관서비스에 대해 익숙한 정도가 매우 높았다. 기관서비스에 대해 익숙할수록 자립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된다 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을 이용하신 회원분들이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 10년 이랑 계. (연구참여자6)

3.2.2 생활에 안주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회원 수가 다수임

사업수행기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활에 안주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회원 수가 다수였다.

계속 여기에서만 활동하시고 사실 여기 생활에 그냥 안주하셔서 외부 취업이나 어떤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 상황이었는데(연구참여자6)

3.2.3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가 다져져있지 않아 참여가 어려움

대다수의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가 다져져있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기나 의지부터 다지는 접근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3.3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

3.3.1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동료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동료지원가분들이 이제 시간대를 맡아가지고 월라인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상황이나 혹은 이제 그 너무 주말 동안에 힘들시고 전화 통화할 때가 없어서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대일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집단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10)

가정방문이라든지 혹은 취업장 방문처럼 이제 우리 회원분이 회원분에게 가서 이제 뭔가 정서적 지원 말벗서비스 해드리는 역할이 첫 번째이고요. (연구참여자1)

3.3.2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1)

동료개별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일대일로 이제 회원분 동료 회원의 욕구에 맞게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그 목표에 따라서 활동 같이 계획하고 (연구참여자6)

3.3.3 자조모임 운영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당사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저희 이제 주말에 회원분들 이제 계속 집에서만 지내고 하시니까. 저희가 자조모임 진행하는 거... (연구참여자1)

3.3.4 사업 및 시설홍보, 보조지원 역할

동료지원활동가는 기관 내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사업과 시설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저희 같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만성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다보니까 제가 인근에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저희 같은 시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1)

부서활동을 하는데 부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활동 내에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고 행정적인 업무 좀 진행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6)

3.4 참여당사자들에 대한 활동동기부여 방법

3.4.1 급여지급

동료지원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어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장치였다. 자신이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 지급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급여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활동을 하고나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저희가 그 지금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교육을 할 때와 당사자 일자리 사업으로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으시면서 할 때와 선생님들의 그런 활동에 적극성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연구참여자10)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다보니까 보다 더 동기가 높게 참여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10)

이제 프로그램 진행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몇 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저도 이런 일을 하니깐 생각보다 쉽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는 반응이 되게 많으셨고, 만족도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돈이 들

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일단 크신 것 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개념이 잡히다보니까... (연구참여자8)

3.4.2 의미있는 역할수행

동료지원활동가는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아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원들과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신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뭔가 서비스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시설의 직원 같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직원과 회원의 중간다리 같은 역할들을 자기가 하는 것 같더라고 하시면서 그런 역할들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1)

3.5 사업참여를 통한 동료지원활동가의 긍정적인 변화

3.5.1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함

동료지원활동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도 보였다.

그러니까 내부 활동으로만 참여하셨을 때는 그냥 이거를 해도 돼요. 이렇게 수동적이었다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고 나서부터는 되게 능동적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 취업자로서의 마인드라는 게 확 느껴져서 그니까... (연구참여자7)

3.5.2 힘들지만 보람을 느낌

동료지원활동가가 동료들을 살피고, 기관 업무를 보조하는 등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저희 회원분은 주로 이제 뭔가 가정방문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이 보셨을 때 자기가 이제

뭔가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족도는 좀 있으신 것 같고...(연구참여자1)

3.5.3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습함

동료지원활동가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였다. 동료상담을 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인지하고 나서는 심리학 공부를 하였다. 이는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이므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걸 해보겠다고 하셔서 심리학 관련된 걸 직접 공부하셨고, 동료지원 리더로 있고 이 사업 관련되어서 또 교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좀 더 전문성이 향상되어 계시고 있어요(연구참여자10)

3.5.4 흥미를 갖게 됨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을 하면서 일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경우가 있었다. 본인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본인에게 계속 그 기회가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3.6 사업운영에서 발견된 문제들

3.6.1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함

동료지원활동가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나, 그 수준은 아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적극적인 수준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직원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어떤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보다 정립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조모임도 소수로 진행하거나 이런 활동이다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는 회원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말 직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직원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라는 걸 알지만 이분들과 소통하는거나 직원들 직원으로서 소통하는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 담당자로서 느낄 때 취업했다라는 개념보다 어떤 기관에서 그냥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이지 않나 아직.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6)

3.6.2 급여수준이 낮음

동료지원활동가인 당사자에게 활동가 활동에 따른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생계를 위해서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좀 급여가 한달에 저희가 지금 2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이제 급여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저희도 사실 이제 당신이 이제 일자리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급여금액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

3.6.3 활동가의 역할이 모호함 : 회원인가 직원인가

동료지원활동가는 본래 기관의 회원으로서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동료지원활동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회원으로서 동료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다보니 동료지원활동가는 직원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료지원활동가인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모호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료들도 활동가를 대하는 태도가 모호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제 회원분이 여기서 같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회원과 직원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혼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연구참여자6)

뭔가 이렇게 직원이다 해서 월급을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회원들과 같은 공간을 쓰고 계시고, 또 뭔가 역할들, 당사자 리더 역할을 하시다가, 또 이제 퇴근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

희가 그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1)

3.7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

3.7.1 동료지원활동가 역할 지원을 확대함

첫째, 실제적인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동가별로 역할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도 다소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정립해나가면서 새로운 역할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좀 다르게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동료지원가이지만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좀 부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실제 저는 취업중심 지금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취업장 관리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 취업장에 이제 운이 좋게 (연구참여자5)

둘째,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들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슈퍼비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만큼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료지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엄청 고민하고 계셔서 그런 거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연구참여자10)

셋째, 보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점차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이 정립되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이 있듯이 동료지원가들도 이제 보수교육이나 이런 동료들 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들이 좀 생기자보면 하나의 직

군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3)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보다 발전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리더양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참여 동기를 보면, 동료지원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당사자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하였으며, 기존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은 동료지원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갖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직원중심의 사업 형태에서 당사자 중심의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둘째,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료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역할,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의 역할, 자조모임 운영의 역할, 사업 및 시설홍보, 보조지원의 역할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사업참여 당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참여를 통해 동료지원활동가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며,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전문적 향상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일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넷째, 사업운영시 발견되는 문제들로는,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낮은 급여수준과 활동가의 역할이 회원인지 직원인지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료지원 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으로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료지원활동가 역할에 대한 슈퍼비전과 보수교육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활성화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동료지원활동가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지원활동가가 실제

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수립이 필요
한데, 현재 활동가는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었다가 동료지원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
원의 입장에 서게 되는 모호한 역할에 직면하고 있다. 그
리고 활동가별로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
데, 이러한 불분명한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수행하고 있
는 동료지원활동가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정립해나가면
서 기관내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상의 역
할들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
된다. 또한 동료지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
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립생활을 원조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리더들이 하나의 직군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제공이 필요하
다. 이러한 부분은 2020년부터 동료지원가 양성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교육기관 인증지원이 시행되고 있으
므로, 양성교육 표준화를 통하여 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동료지원활동가 교육 및 실제적인 활동
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논의와 협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셋째, 동료지원활동가의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일자리 지
원사업을 통해서 동료지원활동가에게 실질적으로 월 5만
원정도의 훈련수당으로 참여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현재
로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방
안이 거론되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라 보기 어렵다. 시간당 급여 자체 수준을 확대하여 최소
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제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동료지원활동가를 위한 적극적인 외부 고용 연
계가 필요하다. 현재 동료지원가의 업무가 주로 기관내부
의 역할수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동료지원활동가의 업
무를 확대, 개발하여 기관 외부고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
제적으로 당사자들의 고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실무자 및 동료지원활동가를 상호지원하는 네
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실무자들 간 그리고 동료지원활동가들 간
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면, 이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동료지원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직업재
활 실무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여
동료지원활동의 고용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동료지원활동을 실시하는 10개의 정신재활시
설을 중심으로 일부 사례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연구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체 대상자들로 대상
을 확대하여 동료지원활동가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보다 발전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동료지원활동의
표준화된 업무지침과 운영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를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모델로서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확대,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S. Jeong, Y. T. Kim, M. Kim & S. J. Kang. (2021). Revitalization Plan of Peer Supporter Activities for Employment Support of th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1(2), 63-89.
DOI : 10.24226/jvr.2021.8.31.2.63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2022). Status of Disabled Persons Registration in 2021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2000).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2020.
- [4]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9). *2019 Survey on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Business Sector*.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5]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2018).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Pilot Stud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Mental Health.
- [6] D. M. Shin, & N. D. Heo (2013). Characteristics of Fiscal Supporting Job Program in Korea and Its Future Cours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2(4), 115-141.
- [7] Y. S. Jeong, Y. T. Kim, M. Kim & S. J. Kang. (2021). Revitalization Plan of Peer Supporter Activities for Employment Support of th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1(2), 63-89. DOI : 10.24226/jvr.2021.8.31.2.63

- [8] A. Gartner & F. Riessman. (1982). Self-help and mental health.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3(8), 631-635.
- [9] S. H. Jung, C. M. Ju, S. H. Kim & H. Y. Heo. (2019). The Effects of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 (WRAP) as a Peer Support Program on Recovery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10(1), 207-232. DOI : 10.22836/kaswpr.2019.10.1.207
- [10] S. H. Lee. (2021).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 on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of Mental Health Peer Support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26(1), 52-59.
- [11] K. H. Ha. (2014). The Peer Support Program Effect on Recovery of Peer Provider.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1), 31-52.
- [12] P. Solomon. (2004). Peer Support/Peer Provided Services Underlying Processes, Benefits, and Critical Ingredient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7(4), 392-401.
- [13] L. Davidson, M. Chinman, B. Kloos, R. Weingarten, D. Stayner, & J. Tebes. (1999). Peer Support among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6, 165-187.
- [14] G. Landers. & M. Zhou. (2011).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Peer Support, Psychiatric Hospitalization, and Crisis Stab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106-112. DOI : 10.1007/s10597-009-9218-3
- [15] J. Pepper. & T. Carter. (2011).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Peer Support in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Mental Health*, 20(4), 392-411. DOI : 10.3109/09638237.2011.583947
- [16] G. Moran, Z. Russinova, V. Gidugu, J. Y. Yim. & C. Sprauge. (2012). Benefits and Mechanisms of Peer Providers with Mental Illnes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2(3), 304-319. DOI : 10.1177/1049732311420578
- [17] M. Salzer. & S. Shear. (2002). Identifying Consumer-Provider Benefits in Evaluations of Consumer-Delivered Servic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5(3), 281-288. DOI : 10.1037/h0095014
- [18] S. Peebles, P. Mabe, L. Davidson, L. Fricks, P. Buckley. & G. Fenley. (2007). Recovery and Systems Transformation for Schizophrenia.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0(3), 567-583. DOI : 10.1016/j.psc.2007.04.009
- [19] S. Ratzlaff, D. McDiarmid, D. Marty, & C. Rapp. (2006). The Kansas Consumer as Provider Program: Measuring the Effects of a Supported Education Initiative.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3), 174-182. DOI : 10.2975/29.2006.174.182
- [20] A. Ledbetter. (2018). The Transitional Discharge Model (TDM). <http://www.ledbetterfilms.com//our-videos.html>.
- [21] UK Public General Acts. (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UK
- [22] K. H. Ha. (2022). How will Peer Supporters Work Together in a Mental Health Institution? : Focus on Experiences of Professionals and Peer Support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5(2), 31-61. DOI : 10.24301/MHSW.2022.06.50.2.31
- [23] J. H. Shin, Y. J. Shin & M. S. Lee. (2013). Development of Peer Support Program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Mental Health*, 4(1), 35-46.
- [24] K. H. Lee. (2014). A Study of Grounded Theory on the Recovery Proces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Peer Support Activities. *Mental Health*, 5, 17-32.
- [25] S. H. Woo. (2020). Empowerment Experience of Mentally Ill Persons Providing Peer Support.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7(1), 40-48. DOI : 10.16952/pns.2020.17.1.40
- [26]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최 희 철(Hee-Chul, Choi)

[정회원]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9년 8월~2010년 2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2010년 3월~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직업재활, 사회복지실천
- E-Mail : pride838@kangnam.ac.kr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17년 7월~2020년 2월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 2020년 3월~2022년 2월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2022년 3월~현재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wookana@hanmail.net